

개화기 이래 땅의 침략과 저항사

李鎮昊 지음 「大韓帝國 地籍 및 測量史」



이진호씨

19세기말 일본을 비롯한 서구열강이 조선의 굳게 닫힌 쇄국의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된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地籍 및 측량의 측면에서 분석, 고찰한 이색저술 「大韓帝國 地籍 및 測量史」(土地)가 최근 간행돼 관심을 끌고 있다. 근 30여년간 지적측량 외길을 걸어온 李鎮昊씨(56·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연구소원 교수)가 그간의 연구성과를 모아 어렵사리 상재한 이 책은 특히 풍부하고도 세밀한 자료 조사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내보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舊한국정부와 조선총독부 관보를 비롯, 당시 신문의 기사와 광고, 그리고 한·중·일 3국의 이방면 회귀자료를 두루 섭렵한 저자의 노고를 이 책은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자료섭렵을 통해 한국에서의 현대지적의 기원과 측량교육의 시작 등을 밝혀 내는 한편, 개화기의 선각자들이 국권수호의 입장에서 측량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낸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모두 5장에 이르는 본문과 각종 법령 및

규정 79건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된 가운데, 책의 말미에 저자 자신의 측량사 연구 여담을 기록한 에세이를 곁들여 흥미롭기도 하다.

일인 측량대에 백성은 저항, 관리는 비호

개화기를 전후한 측량침략의 역사는 18세기 말까지 올라가는데, 한반도 연근해에 출몰하던 '異樣船'에 의해 측량침략이 자행되면서 그때마다 그들 나름의 명칭을 우리 섬이나 만에 갖다붙이는 식으로 진행된다. 巨文島를 'Port Hamilton', 안면도를 'Lindsay Island' 라 한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가장 본격적인 것으로는 이른바 '雲揚號사건'(1875)이 그 효시가 된다. 이 사건을 발미로 한·일간에 체결된 강화도조약 제7조에 따르면, 일본은 조선의 연해·도서·암초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海圖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약원문에 '避危就安'이라 하여 명목상으로는 한·일 양국의 안전通商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일본측의 저의가 조선침략에 있음은 물론이다.

또, 1892년에는 부산주재 일본총영사 室田義文에 의해 "만일에 큰 일이 있을 경우 군사 및 수송에 상당한 불편이 있으니 반드시 철도를 놓아야 하겠다"는 침략의도 아래 부산서 대구까지의 선로측량이 진행되기도 한다.

1890년대 후반에 오면 이같은 측량침략의 사례들을 당시의 신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서울서 의주까지 철도를 놓을 양으로 대한정부와 약조한 불란서 회사 사람 레그릴씨가 철도기사와 같이 일전에 서울로 왔는데 그 철도기사가 일간 떠나 철도 놓을

조선의 굳게 닫힌 쇄국의 문이 열리며

시작된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지적 및

측량의 측면에서 분석한 이 책의 특징은

풍부한 자료섭렵을 통한

실증적 연구에 있다.

한국에서의 현대지적의 기원은 무엇이며,

우리의 초창기 측량교육의

현황은 어떠했는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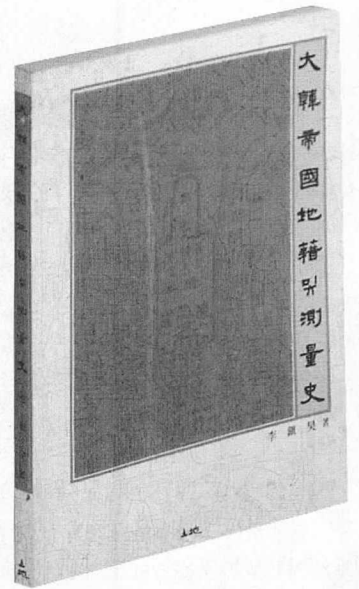
이 책은 잘 알려준다.

선로를 측량하러 간다더라"(1898년 2월10일 「독립신문」 잡보)와 같은 기사가 자주 눈에 띄어 이때부터 일본 및 서구열강의 측량침략이 본격화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측량침략에 대한 저항 또한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저자가 입수하여 소개하는 일본측의 극비문서 「外邦測量沿革史」에 따르면, 측량반원에게 쌀의 판매를 거절하고(1895년 함흥), 심지어는 측량대가 '폭도'에게 살해당하는(1896년 체천) 일 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는 백성들만의 저항이었을 뿐 양반관료들은 오히려 일본의 측량작업을 조장하고 비호한 것으로 드러난다.

선각자들, 국군운동에 측량교육 접목시켜

1898년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지적업무를 관장할 量地衙門을 설치, 미국인 측량사 크럼



(R.Krumn, 한국명 巨廉)이 초빙돼 한국정부 주도하에 측량 및 측량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때 제작한 '漢城府地圖'가 한국현대지적도의 원조로 꼽히고 있으며, "양지아문에서 새문안에서 양지하다가 기계에 달린 주석으로 만든 추를 잃었사오니 얻은 이는 본 아문으로 보내면 돈 사원을 상여할 터이오"(「황성신문」 1899년 4월29일)와 같은 광고가 당시의 사정을 잘 보여준다.

일본인에 의한 측량교육은 구한말 정부의 재정고문으로 와 있던 目賀田種太郎이 19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諸百事業의 이익의 기초는 토지조사"라는데 착안, 서울·대구·평양·전주에 측량기술견습소를 개설하여 기술자를 양성하는 한편, 대대적인 전국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다. 이때부터 한일합방 이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제가 수탈한 우리 땅은, 조사에 소요된 경비가 2천4십여만원에

한 가정에 한권씩
머리속에 청량제를

7살 손자부터 70세 할아버지까지
은 가족이 둘러앉아 벌이는 한판의 머리대결

머리만들기

이 책은 굳어져가는 머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머리에는 기름칠을 해주기 위해 출판되었습니다. 특히 과중한 수험공부나 취직시험 등으로 암기력 위주의 사고능력만 발달했을 뿐 자유분방한 상상력이나 풍부한 독창력이 점점 줄어드는 젊은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1권 : 머리의 창조력개발
2권 : 머리의 독창력 개발
3권 : 세계일주 머리여행
230판, 1, 000만부 돌파

4권 : 천재들과 머리대결
각권 220쪽 내외. 값 2, 500원
10권까지 계속 출간됩니다.
타고아끼라 지음
정 태 원 옮김

필독서!
금융계 종사자들의

정상을 다투는 두사람의 부행장과 은행업무를 마비시키는 예금인출사태. 컴퓨터의 핫점을 이용한 위조 신용카드의 등장과 범죄조직의 개입, 그리고 거대은행의 파산을 자초하는 정경유착의 부정대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사회소설의 대가
아서 헤일리의 출세작

작은 거인들 (1,2)

아서헤일리 지음
최 덕 식 옮김
각권 330쪽 내외
값 3, 500원

도서출판 산하 392-7641(대) 313-2582(FAX)

국내 최초의 불교경전 문헌해설

鄭承碩 엮음 「佛典解說事典」



방대한 양의 불교경전들 가운데 불교의 근본사상을 표현하고 불교의 발전에 공헌한 바 크다고 평가되는 중요 문헌들을 골라 그 주요 내용 및 관련연구 현황, 문헌학적 정보들을 소개한 「佛典解說事典」이 최근 선을 보았다. 인도·중국·티베트·한국·일본의 중요 불전 308개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이 사전은, 비록 편역서란 한계는 지니지만, 불전해설사전으로 국내최초라는 점에서 일반인 뿐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폭넓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불교학자 62명이 동원되어 발간된 「佛典解題事典」(春秋社, 1977)을 저본으로 삼아 그 체재와 기술의 스타일을 일관되게 재편성하는 한편, 우리 불교학계의 최근 연구 성과도 광범하게 반영했다. 특히, 고려대장경과 한글대장경, 한국불교전서 등 국내 불전에 의한 출처를 제시하고, 한국불교찬술문헌을

첨부한 편자의 노력은 돋보인다.

수록문헌 308개의 내역은 인도 124개, 티베트 18개, 중국 92개, 한국 23개, 일본 18개 및 인도고전 33개인데, 인도고전의 경우 불전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불교사상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불전해설에 포함시켰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중국의 경우에도 불교와의 상호영향력이 인정되는 도교문헌을 일부 소개했다. 그간 우리에게 도외시당했던 일본불전도 편역의 원텍스트에 실린 것들 중 일본불교사의 영향력 있는 문헌이거나 한국불교와 대비될 만한 것들을 골라서 수록했다.

항목의 배열은 漢字 표제어의 한글음 가나 다順으로 하고, 따로이 말미에 한글 및 로마자 색인을 작성하여 덧붙였다. 經, 律, 論에 걸쳐 불전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목록선정의 엄정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약점을 보이지만, 문제가 될 만한 문헌일지라도 대개는 후대의 '합의된 평가'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은 것들이라는 점에서 큰 무리는 없다.

친절한 내용 해설과 객관적 정보가 국내의 독창적 저술이 아니라는 아쉬움을 충분히 상쇄시키는, 佛門과 일반인 모두에게 유용한 사전이다. 편역자는 「불교의 이해」 등을 펴낸 바 있는 젊은 불교학자로 현재 동국대에 출강하고 있다.

민족사 / A5신 / 430면 / 12,000원

비해 수탈한 땅을 다시 불하한 대금과 소작료 징수액이 5천7백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다.

교육구국운동에 측량교육을 접목시킨 개화기 선각자들의 이른바 '新教育救土運動'은 저자 이진호씨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낸 부분.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측량私學의 전체상을 「독립신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등의 논설·잡보·광고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특히, 131개소에 이르는 개인 및 학회 단위의 측량학교 목록을 일일이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이는데, 이 시기에 이처럼 많은 측량학교가 개설된 데에는 을사보호조약으로 빼앗긴 국권을 찾자는 신교육구국운동과 함께 "3년 안에 지적을 측량, 제출하지 않는 땅은 국유로 한다"는 삼립법(1908)의 공포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측량학교 가운데 유명한 것만 들어도 閔泳煥의 興化學校 양지과, 兪吉濬의 壽進宮 측량학교, 李夏榮의 삼일학당 측량과, 湖南學會의 사립측량학교, 韓龍雲의 京城明進측량강습소, 李容翊의 보성학교 측량과, 李商在의 황성종로기독교청년회관강습소 측량과 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 1909년 「경향신문」 잡보에는 "어화 우리 동포님네 측량가를 들어보소"로 시작되는 북간도 敎鄕학교의 '測量歌'가 게재돼 있어, 당시 측량교육에 참여한 선각자들의 구국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와함께 이 책에는 당시의 측량교과서들의 면면이 풍부한 사진자료와 원문 영인을 곁들여

상세히 해제돼 있는데, 「新選測量學」(1908), 「土地測量法」(1908), 「量地法」(1908), 「土地測量術」(1908), 「最新田野林野實地測量法」(1909) 등 13권의 교과서를 소개하고 있다.

북간도에선 '측량가' 불리기도

저자 이진호씨가 이 책의 '맺는 말'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개화기를 전후해 술한 측량 침략을 당해 왔다. 여기에 저항도 하고 스스로 측량 및 측량교육도 실시한 바 있지만, 결국 우리손으로 완성을 보지 못한 채 일제로 하여금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수탈을 가능토록 만들고 말았다.

"농지를 측량하지 않으면 세금징수를 고르게 할 수 없으며, 그런 까닭에 경계分定과 농지 측량이 仁政의 시발점이다"라는 구한말 한 無名서생의 試卷의 일절을 심각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우리의 측량사를 통해 "신은 자기의 뭇을 포기하는 자에게 등을 돌린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이 기간에 이루어진 측량이 우리의 개화와 교육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했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다.

개화기 이래 우리땅의 수탈과 저항의 역사를 자료 중심으로 개괄하는 데 유용한 책이다. 다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다소 많은 誤·脱字가 이 역저의 흠이 되고 있어 개정판을 낼 때 세심한 손질이 필요할 것 같다.

土地 / B5 / 300면 / 7000원

—강철주기자



표지디자인·본문편집·제작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3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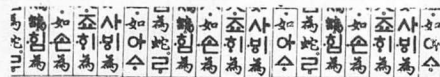
279·1323

아름다운 책, 읽기 편한 책을 원하십니까.
「여름새벽」으로 연락하십시오.
「여름새벽」은 일급쟁이들로 이루어진
창조적 두뇌집단입니다.



◀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

※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121-130 서울시마포구구수동21-1 ☎ 718-6260



출판디자인실



열·린·사·고·와·열·린·시·각·의
·디·자·인·공·간·

SINCE 1986

■ 편집에서 인쇄대행까지 ■

표지디자인·팜플렛·카타로그·본문디자인
서울시 중구 을지로3가 342 / 272-2376



출판 미술 전문

교과서,참고서 컷·삽화
아동 삽화물·카타로그
표지 디자인·팜플렛

☎ 313-4723 이상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1-1
★ 남아현 상가 216호 ★